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서훈을”

박용규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발간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체포돼 순국한 전봉준과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 독립유공 서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을 통해 “아직도 대한민국은 양반의 나라인가. 독립유공 서훈에서 항일 농민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갑오의병(1894년 8월), 을미의병(1895년) 등 의병 운동 참여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지금까지 2,000여 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다. 그런데 갑오의병과 을미의병의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은 국가보훈처가 서훈대상에서 지금까지 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갑오의병과 을미의병, 2차 동학농민혁명 모두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에 맞서 벌인 독립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독립유공 서훈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서훈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미나마: 너희들이 거병한 대목적을 숨기지

말고 말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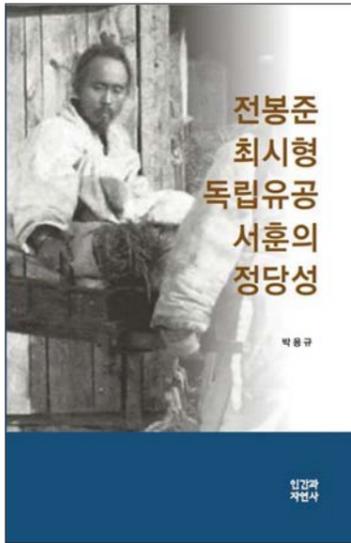
전봉준 : 7월 일본군이 경성에 들어가 왕국을 포위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 동지를 모아서 이를 쳐서 없애려고 다시 군대를 일으켰다. (p. 32)

박 연구위원은 일본의 미나마 고시로가 전봉준을 취조한 공술서 내용도 책에 담았다.

박 연구위원은 “항일 독립운동인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항일 투쟁의 총사령관이 전봉준이었고 최고 지도자가 최시형이었다. 전봉준·최시형과 함께 1894년과 1895년에 걸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일어나 싸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항거했고, 그 반대와 항거로 인해 순국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을미의병, 을사의병, 병오의병, 정미의병 참여자들은 1962년부터 정부의 독립유공 서훈을 받기 시작했다. 양반 유생이 주를 이뤘고 지금까지 2,671명 정도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불공평과 모순이 시정되기를 역사학자인 저자는 바라고 있다”며 “정부는 2019년 동학농민운동을 국가기념일(5월11일)로 지정해 기념일 행사를 벌이고 있다. 참여자들에 대해 곧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



민족문제연구소 박용규 연구위원은 최근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을 발간했다.

유공 훈장’을 추서해 주는 데서 진정한 명예 회복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뉴스



‘시작의 울림:국악’ 기획전시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에서 다양한 국악기 관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이 (주)신세계에프·메세나 협회·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시작의 울림:국악’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 국악기의 깊은 울림과 유려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자 기획됐으며, 다음달 26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에서 전시한다. 박, 거문고, 용고 등 작품 17여 점이 전시돼 국악기에 담긴 한국 공예의 정수를 엿볼 수 있으며 한지리에서 다양한 국악기를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악기는 소목, 금속, 가죽, 단청, 매듭 등 다양한 소재와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제작된다. 각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현금, 양금 등 여러 전시된 종류의 현악기는 고유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특히, 전시장 중앙에 배치된 향비파와 아쟁은 쌍희자귀문발을

배경으로 괴목광상 위에 진열돼 마치 국악의 울림과 선율이 흘러나오는 연주를 연상하게 한다.

한편, 전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을 지키며 실내 수용인원 30% 이내로 방문객을 제한한다. 전시관 오픈전 자체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세정제 비치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부득이 현장을 찾지 못할 경우 온라인 전시 영상을 통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전주공예품전시관’ 또는 ‘시작의 울림 국악’을 검색해 시청하면 된다.

전주완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063-282-8886)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26일~3월 12일까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생애주기 맞춤형 사업과 14개 시·군의 균등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2021년도 ‘전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단체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는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 접속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꿈다라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특성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등 4개 분야로 총 사업비는 14억5,500만원이다.

먼저, 올해 10년 차 사업인 ‘꿈다라 토요문화학교’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며, 신규형·성장형·확장형으로 세분화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29개 운영단체를 선정, 최소 1,4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특성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 환경과 인문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 건강한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새내기·성장형·확장형 커뮤니티 유형에서 26개 운영단체 내외로 선정해 1,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형 및 새내기 커뮤니티는 도내 14개 시·군별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자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신규단체 및 경험이 필요한 단체를 선정한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유아(만 3~5세)때부터 예술 경험을 통해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문화 기반시설의 고유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이며, 도내 문화시설 등 3개소 내외로 선정해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예산 20% 이내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도내 중추도시권(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을 제외한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시설을 우대한다. 예술단체의 경우 공모지원이 가능하나 문화시설과 업무협약을 통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시설이 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배치해 지원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공모대상은 도내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문화시설이며, 도내 문화기반시설 7개소를 선정해 시설별 2,8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 20조에 해당하는 의무배치시설(공공도서관, 문화의집 등)은 우대한다.

공모 관련 사업설명회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51~3, 7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황희 문체부 장관, 문예위 신임 위원 3명 위촉

장인주·정종열·정정숙 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장인주(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무용평론가·무용 분야), ▲정종열(연세대학교 교수·음악 분야), ▲정정숙(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소장·문화일반 분야) 3명이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위원 선임절차는 현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운영을 통해 진행됐다. 추천위 1차 회의를 통해 공모문, 심사방법 등을 확정했고, 15일간의 공개모집 절차를 걸쳐 후보자 총 60명이 신청했다.

이후 추천위는 서류, 면접 심사와 전체회의

등 단계별 과정을 통해 최종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문체부는 2배수 명단을 대외에 공개하고 현장 의견 접수 등을 거쳐, 최종 3명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황희 장관은 이날 신임 위원을 위촉하면서 “예술현장과 활발한 소통에 힘써주길 바란다. 현장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울러 신임 위촉 이후에 전체 위원 12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각 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며,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